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하다

행17:16-33

지난 1년 동안 말도 많던 로잔 대회가 지난주에 끝났다. 이것은 빌리 그래함, 존 스토틀 등 자유주의/신복음주의자들이 만든 모임,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교회들이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들어섰다.

서울 선언 성경 부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높은 성경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면 성경을 사람의 말로 낮게 보는 성경관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세계복음연맹(WEA) 총재 김상복 목사의 주장: 김상복 목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기독교로 인정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들에게는 또 다른 책무가 주어졌다. 자유주의/신복음주의자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성경만을 신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진실...

행20:27-30

그래서 오늘부터 Only One Way라는 책의 6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다. 2007년(*)

한 하나님, 한 구원자, 한 진리, 한 백성, 한 길 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21세기는 자유주의 철학, 신학, 인생관이 지배하는 시기,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 포스트모더니즘 나무위키: 서구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를 의심하는 사상적 및 정치적 경향의 총칭.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 사회의 주류였던 이성, 합리성, 근대성, 거대 담론 등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을 해체하려는 사상적 경향성'이다.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 발생한 해체 사상의 영향을 받아 60-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소위 '의심의 세 대가'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를 마르크스 모두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니체야말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상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장 쉬운 예로, '신은 죽었다'라는 폭탄발언을 날려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에 있던 신을 끌어내리지 않았던가. 이 선언으로 종교의 규범을 해체했다는 점이 포스트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징: 한마디로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긴다.

여기에서 다원주의가 나온다(Pluralism).

다원주의: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다원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와 여러 사상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덕목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이야기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종교다원주의, 정치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 등이 존재하며, 개인의 주관에 중요시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성을 파괴하려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

모든 종교는 같다.

동성애도 이성애도 아무 문제없다.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

당연히 진화론, 사회 정의(공산주의, 사회주의), 소수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성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하려고 한다. Only One Way

오늘 < > 과연 하나님과 사람, 구원자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가?

20세기, 21세기의 특징: 변화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만든 변화

1. 비행기(인공위성 우주 탐사), 1903년 라이트 형제 실험
2. 자동차, 1886년 독일의 칼 벤텔
3. 고층 빌딩(엠파이어스태이트 빌딩, 102층, 1931년)
4. 라디오(1904년경), TV(1927년경 벨 전화 연구소)
5. 컴퓨터(1946년)
6. 인터넷, GPS
7. 스마트폰(2007년 아이폰 출시)

이런 것들의 발명, 사람들의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이 어디 있어.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을 지으려던 자들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1. 하나님은 성품, 지혜, 지식 면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인간이 이 모든 기술을 발전시킨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3. 인간의 죄의 본질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4. 하나님의 인간 역사 경영, 이스라엘의 귀환 등 전혀 변하지 않았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복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6. 이 모든 것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성경도 바꾸려 한다.

특히 우리가 변해진 데, 없음이 전혀 없는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
포스트모더니즘 주의자들: 절대적 진리는 없다. 진리는 사람마다 사회마다 변한다. 그러나 사실은 No!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다.

기존의 것들에 지쳤다. 그래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트랜스젠더가 유행하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 그러나 솔로몬은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고 말한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새 것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들어간다.

사도 바울 당시의 세상과 현재 우리의 세상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는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7:22

그 사람들과 현재의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동일한지, 다른지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네는 커다란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도처에서 몰려와 도시를 구경함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 시대의 보석,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의 바위지대에 있는 성채, 파르테논 신전(주전
438년 완공) (*)

또한 그리스 철학자들 스토아학과, 에피쿠로스학과 사람들의 논쟁 장소(18절)

1. 그런데 누가는 17:21에서 이상한 것을 기록한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다.

현시대 사람들의 추세: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2000년 전 아테네에 살던, 여행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가장 케이블에서 가장 많은 채널, 뉴스 채널, News라는 말, 모두가 새것을 듣고 알고 싶어 한다.

뉴스가 변하지 않으면 지루해한다.

아테네 사람들로 부터 우리는 현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본다.

그 당시 사람들도 모두 도시로 몰려들었다.

현시대 사람들도 모두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2. 아테네는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다(17:16). 우상들의 수가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다.

지금도 아테네에는 다수의 여신 남신들이 남아 있다.

아테네 사람들은 미신을 숭배하였다(17:22).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숭배하였다(23).

바울도 어려서부터 아테네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는 우리처럼 도시의 여러 곳을 다니며 구경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습에 감탄을 표시하지 않고 영적인 격동을 느꼈다(17:16).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므로
현시대의 우리에게는 그런 형상들이 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런 것이 가짜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시대 사람들은 그런 조각된 우상들을 검기고 있지는 않지만 아테네 사람들 이상으로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한국 통계: 종교가 사라지고 있다. 무신론자의 시대가 도래한다.

2024년 3월 22일 포항공대신문

그러나 최근 들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며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한국인의 비율은 2004년 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37%까지 떨어졌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한데, 20대의 종교인구 비중은 16%, 30대의
종교인구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즉 MZ 세대들 가운데 신, 내세 등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기독교, 불교, 유교, 카톨릭
모두 포함해서).

이것은 미국,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9>

그러면 이들은 정말로 종교가 없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다원주의자들: 이것저것 모두가 신이다.

사실 현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고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개인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에 몰들어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원주의자들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도시로 몰리는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것으로
급속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이나 현시대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바울이 어떻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동일한 인간 본성, 동일한 죄, 동일한 진리, 동일한 복음
다원주의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

1.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17:23-24).

창조자와 창조물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25)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25).

그러나 사람은 매순간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이교도들의 범신주의를 무너뜨린다.

모든 것이 신이다. No!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만 계신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이다. 여신 남신 모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문제: 하나님은 복음화를 위해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
현시대 성경 사본 언어학자들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을 도와 손실된 사본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래서 3년마다 그리스어 본문이
바뀌고 이에 따라 현대 역본들의 내용이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은 일이다.
우리의 대답: No!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존재해 왔다. 바르게 번역해서 믿고 구원받는 일만 하면 된다.

2.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다(24).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

심지어 민족들의 거주의 한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26).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a.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대다수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기 나라 혹은 도시만 주관한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주관하신다.

사람의 범죄, 여자의 씨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섭리로 주관하셨다.

이방 신들,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따라 이름도
변하고 하는 일도 변한다. 심지어 사람들과 성적 관계도 맺는다.

이교도들의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서 45:5,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교도들의 구원: 이런 신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위로해서 화평을 얻는 것. 이를 위해

심지어 인신 제사도 드렸다. 이것은 마치 화가 난 신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용서를 얻는 것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함과 믿음을 요구하신다.

3. 심판자 하나님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한다. 31절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이다.

롬3:23,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신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신들이 술도 먹고 간음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주저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의를 찾아 유대교라는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롬10:1-3

마르틴 루터는 회심 이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삶, 고행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

현시대 사람들도 아테네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서로 도토리 키 재기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 다원주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하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4. 복음 선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여러 곳으로 이들을 흩어놓았다.(27)

그런데 세상은 이제 멜팅팟, 도시로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롬3:11,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테네의 경우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모두가 형상을 만들어 그 신을 섬긴다(29).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 주셨다(30).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신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모든 민족은 다 다른 조상들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상신을 믿는다.

현시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 왜 유대인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도 신이 많은데 바울의 대답: 하나님은 한 피에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26).

한 사람 아담,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31).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들 사이에 큰 분란이 생겼다(32).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죽으면 끝이다. 당시 사람들, 현시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심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롬1:3-4).
그래서 이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롬10:9,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 No!, 착하게 사는 것 No!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무너지고 만다(고전15:14-15, 18).

결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계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바울은 25-27절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 준다. 해 달 별들, 생명, 호흡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현시대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효능, 매우 강력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한국에까지 옴

왜 효능이 강력하였을까? 물론 성령님의 파위가 강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 편에서는 인간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테네의 바울처럼

현시대 자유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의 문제: 인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교회로 끌어들
임,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음,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록음악, 교회 치장 등).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 복음이 세상의 것과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됨

그 결과 교회에 젊은이들이 넘쳐나도 빈껍데기 교회가 된다. 힐송 교회 등
사도 바울 당시 이교도들, 신들에 대한 두려움

현시대 사람들: 내부의 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 지켜온 것, 허무한 것, 우려,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느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생겨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려면 깨어서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한다. 참으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 이 교회와 성경과 자식들을 지키며 주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곳곳이 믿음 지키고 서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 신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